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3호 [부제 제23205호] 주체99(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은하수 《9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은하수 《9월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몸결에도 그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사로운 국경절날에 한자리에 모시고 음악회를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강위력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참다운 삶의 요람으로 전변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전제 인민의 한결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국경절을 뜻깊게 맞을 것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 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이 음악회를 함께 보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위대한 우리 조국》, 여성6중창과 합창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여성독창과 합창 《내 나라》,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소방

울소리》, 합창 《10대정강의 노래》, 남성독창 《조국과 더불어 영생 하리라》, 피아노독주와 합창 《조선은 하나다》, 여성독창과 합창 《아 그리워》, 민족기악2중주 《비날론삼천리》, 남성2중창과 방창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들네》, 트럼페트독주와 합창 《내가 지켜선 조국》, 여성독창과 합창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혁명적열정과 광만, 풍만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음악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고 날로 통성변영하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근로대중의 행복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의 사회주의제도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혁명적기백과 열정이 나뉘는 음악회를 보면서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장구한 나날 언제나 백전백승의 한길로만 걸은 우리 공화국의 60여성상의 자랑스런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고 천세만세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 더 높이 받들어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흥겨운 광만과 풍만한 정서가 흘러넘치고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격동적인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장

내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품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은하수관현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각하

존경하는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두 나라사이에는 전통적인 선린관계가 존재하고있습니다.
나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키는데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일각하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 메드베제브
2010년 9월 9일 모스크바, 크렘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간부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9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 광영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

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혜공군명에위병들이 서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특혜공군명에위병대가 경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선물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띄여져있었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땅에 자주로 존엄하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불패의 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는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9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불류의 령도로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넘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국의 군사적전지를 굳건히 다져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건국업적

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당보해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꾸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당신들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관계를 계속 확대강화해나갈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합니다.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프로 루쓰
2010년 9월 9일 아바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꽃바구니진정공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들이 띄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주권적담당

보를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그이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수도과 각지의 뜻깊은 곳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에도 한평생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아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이 어린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리며 참가자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항일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으로써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합있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끓이면서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따라 공화국의 통성변영과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태양의 모습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열정 굽이치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우리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를,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소중하고 신성한 국호를 부를 때마다 건국의 위대한 아버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천만의 가슴 뜨겁게 젖어든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62돐을 맞으며 우리는 끝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에 띄워 주제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드넓은 광장은 아침부터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함축되어 있는 금빛대천수별이 새겨진 돌대문을 지나 광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로 삼시에 바다를 이루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상상으로 승업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빛나는 눈동자, 얼굴에 넘쳐나는 다함없는 흠모와 뜨거운 충정의 열정...

9월의 명절을 맞는 사랑하는 전사, 제자들을 어서 오라 반겨주시는 온 세상이 환하도록 밝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상

을 우리러 사람들은 삼가 경건히 인사를 드려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금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눈곱도 없게 안겨오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과 주제의 최고성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노라니 우리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해마다 맞이하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이건만 이해의 9, 9월은 사람들의 마음을 류다한 추억과 경모의 정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지난 10여년세월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우리 수령님이다. 그이께서 언제나 봄날의 햇빛과도 같은 환한 미소로 천만군민을 고무해주시며 승리에로 떠밀어주시었기에 우리 공화국이 류없는 반미대

결전에서 기적적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위에 인민의 모든 리상과 행복이 찬란히 꽃피는 눈부신 비약의 전성기가 펼쳐진것 아니라, 광장에 넘쳐나는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더욱 뜨겁고 우리 공화국의 60여년역사에 대한 추억이 깊은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백년이고 천년이고 아버지수령님은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진리가 뜨겁게 흐르는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노라니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느낄수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러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원유공업성의 일꾼인 고정성동무를 만났다. 머리에 흰머리가 내렸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하얗은 추억이 번뜩였다. 10대에 공화국창건의 환희로운 순간을 맞이했던 그는 오늘날도 그때의 감격이 소용돌이치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창건하여주시신 공화국의 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값있는 삶을

누릴수 있었겠습니까.》

알고보니 그는 해방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고 전화의 나날에는 군복을 입고 친위중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호위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행운아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속에서 오래동안 중앙기관의 책임직인 위치에서 사임하며 그는 조국의 존엄과 영예는 총대에 의해서만 수호되고 빛날수 있다는것을 실지 체험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다.

하기에 그는 여든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오늘날도 군복을 입은 그날의 자세로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해방전 지지리도 억눌리고 천대받다가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리게 된 사람이 어찌 그 한사람뿐이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아래 통성변영하는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경건히 우리러는 70대의 김려중동무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신 내 조국을 지켜, 나라의 주인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우리 인민의 총성없는 메트로 걸갈하게 하는 혼연일체의 광장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전정로병인 함흥성동무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이 오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고무추

동한 군사부무를 해온 그의 심정속에 지금도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는 것은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고 우리 장군님이시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의 정으로 더욱 끓어번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시어 우리 인민을 주권국가의 당당한 공민으로, 새 조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기에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도 그릇도 값있는것 아닌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속에 활짝 꽃피는 행복한 생활을 자랑하는듯 광장의 운하를 따라 유유히 흐르는 고니메가 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봄바다 속에 수십명의 로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락방문화회복공작의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유혜영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요람인 공화국의 강화를 위해 애국의 땅과 열정을 다 바쳐 웃는 당대 로동자와 당장진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어왔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여기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을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님과 함께 면면히 이어지는 우리 인민의 총성없는 메트로 걸갈하게 하는 혼연일체의 광장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전정로병인 함흥성동무는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이 오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고무추

동하고있기에 우리 인민의 행복이 더욱 꽃피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곤 하지만 오늘이 어찌서인지 우리 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공화국의 품에서 아버지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교원생활을 하면서 백두산위인들의 온갖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켜주시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 아래서 또 그의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있으니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어찌 여기서의 광장에 차넘치지 않을수 있으랴.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여주시신 우리 공화국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선군의 조국으로 빛나고있음을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뜨겁게 전해주고있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관판 성원철, 김성진동무들도 만났다. 인민군대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적극 내세워주시며 멀고 험한 전진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가 눈굽이 젖어든다고 하는 그들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선군명장의 위대한 헌신의 모습에서 더욱 부강번영할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신념의 맹세 또한 드높은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신 병사로 사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긍지높은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공화국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잡고 영원히 지켜가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제일귀병, 제일기수가 되어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어나갈것이다.

총대로 위대한 선군정치를 앞장서서 받들어가는 인민군장병들, 조국의 영예를 떨쳐야 함을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리는 체육인들, 로동계급과 농장원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에그까지 광장을 찾은 각계층 사람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김일성조국을 더욱 빛내어갈 일념으로 가슴 벅채 우고있었다.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의 하늘가에 김일성시대에는 오늘날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변영하는 시대로 될것이라고 하시면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이 승ებ히 메아리치는것만 같았다.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앞길을 끊임없이 축복해주시기에 공화국의 미래는 창창하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천만가지로 꽃피는 강성대국승리의 축포성은 반드시 터져올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남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리충성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여러 단위에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가 여러 단위에 건립되었다.

통하림산사업소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일떠세웠다.

대흥단군에 있는 감자연구소에는 한형성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백두고원에 감자풍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이 건립되었다.

무산군 읍에 건립된 모자이크벽화 《백두산정에 오르시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기 위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시었다.

모자이크벽화 준공식이 해당단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공화국창건 62돐을 경축하여 이 뜻깊은 자리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헌신투쟁하고 있는 전제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서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경축하고있는 제일본조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와 자리를 같이하고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동지들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2면에서 계속

새로운 혁명적대조의 불길을 지펴주고 백두의 공적정신과 끝없는 헌신으로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도 전설적인 백색산악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천만군민의 입실단결의 위력, 불굴의 정신력을 총괄하시고 오늘도 총진군을 몸소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었기에 주체공업의 위력이 날로 강화되고 온 나라에 인민생활 대고조의 열풍, 최첨단과학의 불길이 세차게 나뉘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와 단호한 정치적결단,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우리 민족주의의 리념들이 나아가는 6.15 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대상이 비상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5월에 이어 근 1년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을 진행하신것은 전통적인 조종선상을 대를 이어 강화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건으로서 부강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국은 결실하던 한디는 당의 구조를 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노력해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아래 혁명적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수령님의 위업, 주

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조선노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결사관철해나갈것입니다.

우리의 전제 당원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리러 보게 할 위대한 포부를 안고 혁명적인 조선노동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하여 심신과 락관에 넘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것입니다.

공화국정권은 미일반동들과 남조선피괴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도발과 반공일제동을 짓부시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자주

농작물보호대책을 철저히

선천군 안상공예전문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으며 혁명적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키는데서 농업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선천군 안상공예전문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요즘

비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일꾼들은 농장원들에게 비바람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 주며 모두가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동원되도록 하였다. 이미 작업반들에서 비바람피해막이에 필요한 자재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게 한 이곳 일꾼들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위험개소들을 밟아보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원들모두가 비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제1작업반의 초급일꾼들은 작업반원들에게 뜻깊은 올해에 풍년나기를 높이 쌓자면 애들 가운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적극 불려들이었다.

물길지나기를 우락다라 끝낸 작업반원들은 밭고랑들을 깊숙이 제추어 비물이 고이지 않고 축축 빠질수 있게 하였다. 그

리고 밭메에는 새끼줄도 둘러치면서 바람이 불어도 농작물이 넘어지지 않게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다. 제3작업반에서는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짝없이 논두렁과 물고랑들을 잘 손질하여놓았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 된 자각을 안고 비바람피해막이대책을 세워나가는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뜨거운 열의에 의하여 농작물의 생육상태는 좋아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값높은 삶은 실적으로 빛난다

순천 화력발전소 일꾼들

《오늘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꾼이 없었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라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기대보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계획된 날짜까지 보수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줄기만을 기다릴수 없었다.

지배인 석두동무와 초급당비서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꾼들은 협의회를 열고 대보수를 앞당기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일꾼들모두의 가슴은 조국의 전진이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높은 자각과 강성대국건설의 전진심을 지켜신 다해갈 하나의 승승고한 분투를 다해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차게 고무되고있었다.

우리 일꾼들부러가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높은 실적을

《오늘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꾼이 없었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라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기대보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계획된 날짜까지 보수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줄기만을 기다릴수 없었다.

지배인 석두동무와 초급당비서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꾼들은 협의회를 열고 대보수를 앞당기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일꾼들모두의 가슴은 조국의 전진이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높은 자각과 강성대국건설의 전진심을 지켜신 다해갈 하나의 승승고한 분투를 다해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차게 고무되고있었다.

우리 일꾼들부러가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높은 실적을

메서도 찾아볼수 없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매주 설비점검일들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예비설비점검을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설비관리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또한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발전소의 책임일꾼들과 직장장, 작업반장을 비롯한 단위책임자들이 주요설비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높은 사람들로 선발배치하고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되고있다.

전력생산분야에서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서도 단연 앞서나가는 기업소.

이와 같은 평가에는 전력증산에 바쳐가는 이곳 일꾼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전하게 서머했다.

발전소일꾼들은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개선에도 큰 힘을 기울이고있다. 그 하나의 실례가 이미 마련된 후방기의 토대를 더욱 다지는 한편 직장별로 축산기지를 새로 꾸려놓도록 한것이다.

직장마다에서 염소와 토끼, 계사리를 비롯한 집짐승들의 마릿수가 늘어나 종업원들의 마음을 흐트라게 해주었다.

일꾼의 값있는 실적으로 빛났다. 이것은 오늘날의 보람찬 총진군에서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꾼들이 다스금 새겨안는 투쟁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일권

《오늘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꾼이 없었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라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기대보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계획된 날짜까지 보수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줄기만을 기다릴수 없었다.

지배인 석두동무와 초급당비서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꾼들은 협의회를 열고 대보수를 앞당기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일꾼들모두의 가슴은 조국의 전진이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높은 자각과 강성대국건설의 전진심을 지켜신 다해갈 하나의 승승고한 분투를 다해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차게 고무되고있었다.

우리 일꾼들부러가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높은 실적을

《오늘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꾼이 없었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라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기대보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계획된 날짜까지 보수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줄기만을 기다릴수 없었다.

지배인 석두동무와 초급당비서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꾼들은 협의회를 열고 대보수를 앞당기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일꾼들모두의 가슴은 조국의 전진이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높은 자각과 강성대국건설의 전진심을 지켜신 다해갈 하나의 승승고한 분투를 다해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차게 고무되고있었다.

우리 일꾼들부러가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높은 실적을

《오늘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꾼이 없었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라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난 7월 발전소에서는 1호발전기대보수를 진행하게 되었다. 계획된 날짜까지 보수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우에서 해결해줄기만을 기다릴수 없었다.

지배인 석두동무와 초급당비서 리정복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꾼들은 협의회를 열고 대보수를 앞당기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일꾼들모두의 가슴은 조국의 전진이 자신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는 높은 자각과 강성대국건설의 전진심을 지켜신 다해갈 하나의 승승고한 분투를 다해갈 하나의 지향으로 세차게 고무되고있었다.

우리 일꾼들부러가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높은 실적을

축산을 잘해야 흥한다

송화군 구탄협동농장에서

침방의 지력을 높이는에서 찾고 집짐승을 길러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헌신의 땀을 바쳤다. 그 과정에 이들은 오리를 논판에서 기르는 방법도 더 잘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 비알팔먹이를 리용하여 집짐승들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이제는 그 덕을 토틀히 보고있다. 돼지, 염소, 오리, 계사리가 우글거리니 그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졌다.

올해에만도 농장원들은 축산기지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다. 여기에 농가에서 생

축산의 덕을 보는것은 농사뿐이 아니다. 많은 고기와 알이 생산되니 농장원들의 생활이 나아짐을 해하고있다. 특히 힘있는것은 태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제로 되고있다.

축산을 잘하여 덕을 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신심에 넘쳐 활력 투쟁을 벌이고있다.

축산의 덕으로 흥하고있는 이 농장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윤용호

축산의 덕을 보는것은 농사뿐이 아니다. 많은 고기와 알이 생산되니 농장원들의 생활이 나아짐을 해하고있다. 특히 힘있는것은 태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제로 되고있다.

축산을 잘하여 덕을 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신심에 넘쳐 활력 투쟁을 벌이고있다.

축산의 덕으로 흥하고있는 이 농장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윤용호

축산을 잘해야 흥한다

송화군 구탄협동농장에서

침방의 지력을 높이는에서 찾고 집짐승을 길러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헌신의 땀을 바쳤다. 그 과정에 이들은 오리를 논판에서 기르는 방법도 더 잘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 비알팔먹이를 리용하여 집짐승들의 증체율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이제는 그 덕을 토틀히 보고있다. 돼지, 염소, 오리, 계사리가 우글거리니 그만큼 거름더미가 높아졌다.

올해에만도 농장원들은 축산기지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다. 여기에 농가에서 생

축산의 덕을 보는것은 농사뿐이 아니다. 많은 고기와 알이 생산되니 농장원들의 생활이 나아짐을 해하고있다. 특히 힘있는것은 태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제로 되고있다.

축산을 잘하여 덕을 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신심에 넘쳐 활력 투쟁을 벌이고있다.

축산의 덕으로 흥하고있는 이 농장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윤용호

축산의 덕을 보는것은 농사뿐이 아니다. 많은 고기와 알이 생산되니 농장원들의 생활이 나아짐을 해하고있다. 특히 힘있는것은 태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제로 되고있다.

축산을 잘하여 덕을 본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신심에 넘쳐 활력 투쟁을 벌이고있다.

축산의 덕으로 흥하고있는 이 농장의 올해농사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윤용호

온갖 불행의 온상인 미군강점을 끝장내야 한다

김일성대원수님의 건국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열렬히 칭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경축 제일본조선인총하 단 단장인 박우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공화국창건기념일에서 즈음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회견하였다.

부의장은 제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건국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류력사에는 위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만경에 하는 김일성대원수님처럼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친 선 위인의 위인이 없었다.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나뭇가지는 공화국을 바라보는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은 이 땅에서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대헌수령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끓어오르고있다.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도, 나라의 평화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바로 이것이 65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 미래는 실체함을 통해 남조선 강점 미군에야말로 조선인민의 존제와 장래운명을 위해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최대최악의 암적존재임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넣고있다.

불행과 치욕으로 가득찬 외세의 강점을 끝장내버리는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침미사대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은 미국의 《동맹》강화를 떠벌이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서 숨없이 팔아먹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행동은 온 민족의 치욕을 격분케 하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외세침략군을 몰아내주고 해도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리익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쫓아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존엄이 살기 위하여 반미자주,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업적을 앞당겨 성취하여야 한다.

허영민

미국의 남조선강점 65년력사는 침략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 꿈을 짓밟고 참을수 없는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범죄의 역사이며 그 어떤 리유와 구실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가장 악랄한 주권침범, 자주권유린의 역사이다. 지금 우리 겨레는 한두해도 아니고 무려 65년세월 우리 나라의 절반방향을 강점하고 횡포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일삼으며 온 민족에게 해야할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이부어놓은 미제에 대한 치욕은 증오로 가슴끓이고있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은 자주적발전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진형이었다.

일찍부터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반도를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추구를 위한 전략적요충지로 삼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만들고, 파벌치한 남강도들의 극비밀 첩보의 력사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후 5년간에 만도 100여만명,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는 124만여명의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전후에도 그 피비린 만행은 계속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65년간 남조선에서 그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어디에나 인간백성 미국살인귀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민들의 명혼이 묻혀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여 인민들에게 끼친 인적물적피해는 무려 수십조US\$에 달한다.

장구한 인류사에는 강점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그처럼 막대한 타격을 입혀주고 인민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야만의 무리는 없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사는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집요하게 방해한 악랄한 반동일모략의 력사이다.

우리 나라의 분열과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꾀하는 미제는 통일을 유리한 지위를 조장하며 때마다 총격적인 사건들을 조작하여 그를 과탄시하였다.

1960년대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 밑에 남조선에서 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5.16군사쿠데타》를 조작하여 그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1970년대에 조국통일3대원칙이 천명된 7.4공통성명이 발표되어 온 겨레의 가슴들이 통일을 위한 희망과 기대로 끓어번질 때 분열주의적책과 《유신》독재 《정권》을 조작하는것으로 그에 찬물을 내린것도 미국이다.

198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서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시작되자 《텔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하고 1990년대에 북과 남, 해외의 진전적협력위원회에서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졌을 때에 《텔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와 반공화국핵소동으로 그것을 가로막아나선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존엄이 오를때도 반동일책동을 끊임없이 일삼고있다. 그것은 올해 남조선피괴물들 부추겨 모략적인 함입식물사건을 조작하고 그들 기화로 도발적인 북침침략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는것으로 하여 국도에 달하고있다.

실로 미제의 남조선강점사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면서 조국통일을 가로막아온 치명적인 죄악의 력사이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

우리 나라를 방만한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 지역의 청년학생 조직대요단, 대표들은 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총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남조선에서 자기 무력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계민주청년연맹과 청년학생들은 앞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장에 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내날청년민주청년연맹 비서 라지비 파파리는 판문점합판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투적사기를 보인다.

아람학생총동맹 총서기 니달 아바르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아람청년학생들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비서 아브너 모사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도, 나라의 평화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바로 이것이 65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 미래는 실체함을 통해 남조선 강점 미군에야말로 조선인민의 존제와 장래운명을 위해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최대최악의 암적존재임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넣고있다.

불행과 치욕으로 가득찬 외세의 강점을 끝장내버리는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침미사대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은 미국의 《동맹》강화를 떠벌이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서 숨없이 팔아먹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행동은 온 민족의 치욕을 격분케 하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외세침략군을 몰아내주고 해도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리익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쫓아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존엄이 살기 위하여 반미자주,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업적을 앞당겨 성취하여야 한다.

허영민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후 5년간에 만도 100여만명,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는 124만여명의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전후에도 그 피비린 만행은 계속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65년간 남조선에서 그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어디에나 인간백성 미국살인귀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민들의 명혼이 묻혀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여 인민들에게 끼친 인적물적피해는 무려 수십조US\$에 달한다.

장구한 인류사에는 강점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그처럼 막대한 타격을 입혀주고 인민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야만의 무리는 없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후 5년간에 만도 100여만명,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는 124만여명의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전후에도 그 피비린 만행은 계속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 65년간 남조선에서 그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어디에나 인간백성 미국살인귀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민들의 명혼이 묻혀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여 인민들에게 끼친 인적물적피해는 무려 수십조US\$에 달한다.

장구한 인류사에는 강점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처럼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그처럼 막대한 타격을 입혀주고 인민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하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야만의 무리는 없었다.

우리 나라를 방만한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 지역의 청년학생 조직대요단, 대표들은 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총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남조선에서 자기 무력을 당장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세계민주청년연맹과 청년학생들은 앞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장에 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내날청년민주청년연맹 비서 라지비 파파리는 판문점합판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투적사기를 보인다.

아람학생총동맹 총서기 니달 아바르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아람청년학생들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비서 아브너 모사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도, 나라의 평화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바로 이것이 65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 미래는 실체함을 통해 남조선 강점 미군에야말로 조선인민의 존제와 장래운명을 위해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최대최악의 암적존재임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넣고있다.

불행과 치욕으로 가득찬 외세의 강점을 끝장내버리는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지금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침미사대에 환장한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은 미국의 《동맹》강화를 떠벌이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서 숨없이 팔아먹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와 야합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행동은 온 민족의 치욕을 격분케 하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외세침략군을 몰아내주고 해도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리익을 반역하는 매국노들을 철저히 쫓아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존엄이 살기 위하여 반미자주,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업적을 앞당겨 성취하여야 한다.

허영민

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총련에서 경축연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8일 도쿄에 있는 조선외환에서 경축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장과 부의장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립체 책임인들과 간도지방 상임본부 위원장들, 동포상공인들이 참가하였다.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그리고 일본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

들, 특파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허종만책임부의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노동당대표자 회를 앞을 두고있는 지금 전체 총련인들과 제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조선인민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획기적인 사면으로서 역사에 이로써서 기록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일본정부와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과거청산과 조일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어 언급하고 그는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대표단성원들이 백두의 천출명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총련의 민중적인 일꾼들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표단성원들의 예술소품 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인민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세계민주청년연맹과 청년학생들은 앞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장에 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내날청년민주청년연맹 비서 라지비 파파리는 판문점합판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투적사기를 보인다.

아람학생총동맹 총서기 니달 아바르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아람청년학생들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비서 아브너 모사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비전향장기수와 상봉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문시후부위원장 단장으로 하는 제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이 8일 비전향장기수 최태국동지와 상봉하였다.

최태국동지는 남조선의 지육같은 강방에서 수십년간동안 적들의 모진 악행과 회유기만

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있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가슴깊이 간직하였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전사로서 용담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를 통일에국투사,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데

이번에 진행하신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획기적인 사면으로서 역사에 이로써서 기록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일본정부와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과거청산과 조일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어 언급하고 그는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대표단성원들이 백두의 천출명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총련의 민중적인 일꾼들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표단성원들의 예술소품 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인민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세계민주청년연맹과 청년학생들은 앞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장에 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내날청년민주청년연맹 비서 라지비 파파리는 판문점합판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투적사기를 보인다.

아람학생총동맹 총서기 니달 아바르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아람청년학생들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비서 아브너 모사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권력에 아부굴종하는 행위에 항의

1일 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지난 8월 30일 《MBC》방송사 사장 김재일이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권력을 비판하는 시사회발표 프로그램을 없애는 등의 방해를 추진하였다고는 알려지지 않았고,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김재일은 피피피국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전 사장 엄기영을 강압적으로 사퇴시

이번에 진행하신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획기적인 사면으로서 역사에 이로써서 기록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일본정부와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과거청산과 조일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어 언급하고 그는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대표단성원들이 백두의 천출명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총련의 민중적인 일꾼들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표단성원들의 예술소품 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인민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세계민주청년연맹과 청년학생들은 앞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장에 물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내날청년민주청년연맹 비서 라지비 파파리는 판문점합판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강점이 계속되는 한 조선의 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은 광범한 국제사회의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조선인민에게 전투적사기를 보인다.

아람학생총동맹 총서기 니달 아바르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아람청년학생들이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청년동맹 비서 아브너 모사 아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 선고

2일 피피피서출중양지방법원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인 이진 민족비판연구소 소장 윤한봉을 비롯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서울에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배라살로투쟁이 전개되자 《김구조치》 4호를 선포한 파쇼독재세력이 단호를 《공산혁명》을 위한 지하조직》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중앙정보부와

이번에 진행하신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획기적인 사면으로서 역사에 이로써서 기록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일본정부와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과거청산과 조일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어 언급하고 그는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대표단성원들이 백두의 천출명장인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애국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총련의 민중적인 일꾼들로 준비할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표단성원들의 예술소품 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억제》의 간판을 단 북침선제공격론

최근 피피피부가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안보총괄정책회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호전파들이 《북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하고 《도발적지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능동적억제전략》이 그 타당성이 검토된 후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

피피피들이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 선제공격작전개념을 거머잡고 들고나온 배경에는 《천안》호사건이 깔려있다. 집권후부터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침략을 가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작전개념이라고 한다. 《안보총괄정책회의》에 참가하였던 한 인물은 《능동적억제전략》이 작전계획화될 경우 《북의, 미싸일기지, 전쟁지휘부시설 등이 주요타격목표가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이것은 피피피들이 지껄었던 험상악기이다. 《방어》적인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전쟁계획의 의의를 벗기고 《억제》라는 구실밑에 그것을 로골적으로 선공격에 의한 전쟁도발이 남조선호전파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라는것이 이리 폭로된 사실이다. 특히 《정권》에서 《전쟁정구》가 포착되면 사전에 상대방의 주요시설들을 선제공

사토수동에 비친 《정권》의 망조

내각개편이니, 《공정사회》니 하며 무슨 변화라도 가져올듯이 분주함을 띄우던 전 남조선 《정권》이 집권후 반기 시작부터 휘청거리고있다. 련속 오를수록 력차나오는 상층부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과 피피피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권이온 사토수동은 보수패당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지난 4일 보수 《정권》의 사토수동의 주역을 놀린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류씨는 자기 딸의 외교통상부 공무원특별채용문제에 사회에 여론화되고 그로 하여 쏟아지는 각계의 비난과 사토수요가 비발칠했기때문이다.

일찍이래 의하면 최근에 진행된 남조선외교통상부의 전례없는 5급 공무원인명명을 특별채용시험에 6명이 나섰는데 그가운데서 유일하게 류명환의 딸만 합격되었다. 시험관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은 배제하고 류명환의 딸에게만 면접을 주어 그를 당선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명환이 직권을 악용하여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자기 딸을 올려놓았다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한 야당대변인은 장관뿐만 특별채용하면서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수 있느냐고 조소를 퍼부었다.

바빠있는 《한나라당》 페거 리들에서도 어쩔수 없었는지 《적절치 못했다.》는 편지가 울려나왔다.

《억제》의 간판을 단 북침선제공격론

최근 피피피부가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안보총괄정책회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호전파들이 《북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하고 《도발적지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능동적억제전략》이 그 타당성이 검토된 후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

피피피들이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 선제공격작전개념을 거머잡고 들고나온 배경에는 《천안》호사건이 깔려있다. 집권후부터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침략을 가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작전개념이라고 한다. 《안보총괄정책회의》에 참가하였던 한 인물은 《능동적억제전략》이 작전계획화될 경우 《북의, 미싸일기지, 전쟁지휘부시설 등이 주요타격목표가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이것은 피피피들이 지껄었던 험상악기이다. 《방어》적인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전쟁계획의 의의를 벗기고 《억제》라는 구실밑에 그것을 로골적으로 선공격에 의한 전쟁도발이 남조선호전파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라는것이 이리 폭로된 사실이다. 특히 《정권》에서 《전쟁정구》가 포착되면 사전에 상대방의 주요시설들을 선공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 선고

2일 피피피서출중양지방법원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인 이진 민족비판연구소 소장 윤한봉을 비롯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서울에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배라살로투쟁이 전개되자 《김구조치》 4호를 선포한 파쇼독재세력이 단호를 《공산혁명》을 위한 지하조직》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중앙정보부와

사토수동에 비친 《정권》의 망조

내각개편이니, 《공정사회》니 하며 무슨 변화라도 가져올듯이 분주함을 띄우던 전 남조선 《정권》이 집권후 반기 시작부터 휘청거리고있다. 련속 오를수록 력차나오는 상층부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과 피피피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권이온 사토수동은 보수패당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지난 4일 보수 《정권》의 사토수동의 주역을 놀린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류씨는 자기 딸의 외교통상부 공무원특별채용문제에 사회에 여론화되고 그로 하여 쏟아지는 각계의 비난과 사토수요가 비발칠했기때문이다.

일찍이래 의하면 최근에 진행된 남조선외교통상부의 전례없는 5급 공무원인명명을 특별채용시험에 6명이 나섰는데 그가운데서 유일하게 류명환의 딸만 합격되었다. 시험관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은 배제하고 류명환의 딸에게만 면접을 주어 그를 당선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명환이 직권을 악용하여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자기 딸을 올려놓았다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한 야당대변인은 장관뿐만 특별채용하면서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수 있느냐고 조소를 퍼부었다.

바빠있는 《한나라당》 페거 리들에서도 어쩔수 없었는지 《적절치 못했다.》는 편지가 울려나왔다.

《억제》의 간판을 단 북침선제공격론

최근 피피피부가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안보총괄정책회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호전파들이 《북의 다양한 도발유형에 대비》하고 《도발적지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것을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능동적억제전략》이 그 타당성이 검토된 후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

피피피들이 《능동적억제전략》이라는 선제공격작전개념을 거머잡고 들고나온 배경에는 《천안》호사건이 깔려있다. 집권후부터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침략을 가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작전개념이라고 한다. 《안보총괄정책회의》에 참가하였던 한 인물은 《능동적억제전략》이 작전계획화될 경우 《북의, 미싸일기지, 전쟁지휘부시설 등이 주요타격목표가 될것》이라고 떠들었다.

이것은 피피피들이 지껄었던 험상악기이다. 《방어》적인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전쟁계획의 의의를 벗기고 《억제》라는 구실밑에 그것을 로골적으로 선공격에 의한 전쟁도발이 남조선호전파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라는것이 이리 폭로된 사실이다. 특히 《정권》에서 《전쟁정구》가 포착되면 사전에 상대방의 주요시설들을 선공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에게 무죄 선고

2일 피피피서출중양지방법원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인 이진 민족비판연구소 소장 윤한봉을 비롯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서울에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배라살로투쟁이 전개되자 《김구조치》 4호를 선포한 파쇼독재세력이 단호를 《공산혁명》을 위한 지하조직》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중앙정보부와

사토수동에 비친 《정권》의 망조

내각개편이니, 《공정사회》니 하며 무슨 변화라도 가져올듯이 분주함을 띄우던 전 남조선 《정권》이 집권후 반기 시작부터 휘청거리고있다. 련속 오를수록 력차나오는 상층부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들과 피피피국무총리와 장관들의 권이온 사토수동은 보수패당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지난 4일 보수 《정권》의 사토수동의 주역을 놀린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류씨는 자기 딸의 외교통상부 공무원특별채용문제에 사회에 여론화되고 그로 하여 쏟아지는 각계의 비난과 사토수요가 비발칠했기때문이다.

일찍이래 의하면 최근에 진행된 남조선외교통상부의 전례없는 5급 공무원인명명을 특별채용시험에 6명이 나섰는데 그가운데서 유일하게 류명환의 딸만 합격되었다. 시험관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은 배제하고 류명환의 딸에게만 면접을 주어 그를 당선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명환이 직권을 악용하여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자기 딸을 올려놓았다는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한 야당대변인은 장관뿐만 특별채용하면서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수 있느냐고 조소를 퍼부었다.

바빠있는 《한나라당》 페거 리들에서도 어쩔수 없었는지 《적절치 못했다.》는 편지가 울려나왔다.



호전파들의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